

# 20년 넘은 호남 노후 산단 4곳 리모델링

### 여수·대불·군산·익산 산단 경쟁력 강화

### 기업애로 해결 지원기관 서비스 구축 사업도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대불, 여수, 군산, 익산 산업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산업단지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윤철)는 15일 '노후 산업단지 혁신과 기업성장지원 고도화 및 사업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올해 역점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산단공은 올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기업성장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운영 확대 ▲자생적 클러스터 확충 및 생태산업단지 성과 확산 중점 추진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업종고도화와 환경개선을 리모델링한다. 군산과 익산, 대불, 여수 등 4개 산업단지에서 공간 재편, 기반시설 개선, 산학융합지구 조성,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혁신단지로 지정된 여수산단은 세부실행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대불산단은 다음달 산학캠퍼스와 기업연

구소 입주시설을 조성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준공한다.

광주지역은 하남산단을 대상으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다음달 22일까지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기업성장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산단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단공은 이를 위해 지역기업의 입지신청 컨설팅부터 공장설립 무료대행, 글로벌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기업성장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을 관내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전남·북 12개 관할 단지를 38개

블록으로 나누고 산단공 전 직원이 전담기업을 정해 현장중심의 지원활동을 펼치게 했다.

글로벌 메이트 수출지원단은 산단에 입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회확대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광주기업주최의 센터를 광주기업성장지원센터로 바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에서 기술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철 산단공 호남지역본부장은 "올해 호남권 산업단지가 생산과 수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점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며 "주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입주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9.96 (+8.24)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 코스닥 694.44 (+9.47)
- ▲ 환율 (USD) 1096.80원 (+0.78)

### 보해양조 대표이사 임지선씨 선임

보해양조가 3세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유철근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유철근, 임지선(30·사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보해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추가 선임 이다"고 밝혔다.

임지선 신임 대표는 1985년 생으로 보해양조 최대 주주사인 창해에탄올 임성우 회장의 딸이다. 임 대표는 미국 미시건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나소닉 인사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보해양조



모회사인 창해에탄올에 입사했으며 2013년 11월 보해양조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이동한 후 대표이사에 올랐다.

임 대표는 "젊은 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보해의 모태인 광주·전남권 밀착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보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3월 취업자 소폭 증가

광주·전남 지역의 3월 중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은 나란히 감소했다.

전남지역 3월 고용률은 6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9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5%)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엠리밋 30별 사면 10% 현금으로 돌려준다

### 30일까지 '광주지역 프로모션'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은 지역 매장 활성화를 위한 로컬 마케팅의 하나로 지역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15 지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엠리밋은 이달 30일까지 엠리밋 롯데백화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광주 아울렛점, 광주 흑석점 등 광주 지역 4개 매장에서 '2015 지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엠리밋은 '단체고객 현금 지원 이벤트'를 통해 엠리밋 제품을 30별 이상 산 고객에게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야구 시즌을 맞아 진행되는 '야구장 이벤트'는 엠리밋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야구 응원용 막대풍선을 증정한다. '엠리밋 매장 방문 이벤트'는 엠리밋 멤버십 회원카드인 '엠포인트 카드(M-POINT CARD)' 고객에 한해 행사 종료 후 구매 이력 리스트를 확인해 매장 별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엠리밋은 향후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엠리밋 홈페이지 (<http://www.m-limite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우위니아 아산공장, 광주 이전하나

### '담채' 김치냉장고 등 생산 ... 상반기중 평동공단으로

'담채'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대우위니아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 대규모 백색가전 생산기지가 이전할 경우 광주가 종합가전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협력기업에게도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지역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있는 대우위니아 생산공장 일부가 상반기 중 광주시 평동공단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면적 6만9945㎡ 규모의 아산공장은 근로자 600여명이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 이전은 제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위니아 측은 이미 광주지역 가전부품 협력업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광주의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대우에이텍은 805억원에 위니아만도의 지분 70%를 인수했고, 이후 위니아만도는 대우위니아로 사명이 바뀌었다. 대우에이텍은 1999년 설립돼 기아차 광

주공장의 자동차 시트를 전량 제조하는 광주의 대표 자동차부품업체다. 박성관 대우위니아 대표는 대우에이텍의 인수 뒤 올해 매출 5200억원, 영업이익 10% 달성이라는 공격적인 사업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대우위니아는 앞서 지난 2월 서비스·물류 전문 자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설치, 배송, 콜센터, A/S 업무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를 본점으로 하

는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대우위니아 생산공장의 물량이 이전하게 되면 광주는 국내 최고의 종합가전생산도시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프리미엄 가전과 동부대우전자의 중소형 가전에 이어 틈새시장을 노리는 대우위니아의 가전까지 광주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량 감소를 걱정하던 부품협력업체들에게도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가전생산공장이 광주에 들어서게 돼, 만약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물량을 빼더라도 협력업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작년 주택 월세가구 비중 55%로 역대 최고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지난해 전국 전·월세가구 가운데 55%가 월세로 거주해 2년 전보다 4.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직전 조사가 이뤄진 2012년 50.5%에서 지난해 55.0%로 4.5%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은 2008년 조사 이후 계속 높아졌으며 주택실태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9.5%에서 45.0%로 4.5%포인트 감소했다. 전세가구와 월세가구 비중은 2012년 조사

때 처음 역전됐다.

월임대료의 중앙값을 가구 월소득의 중앙값으로 나눈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지난해 20.3%를 기록, 2012년 19.8%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세로 사는 가구(82.3%)가 가장 큰 부담을 느꼈고 전세(73.9%), 자가(59.0%) 순이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길거리 유명 음식 후르츠와플 인기 1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 푸드마켓에서 대학가 유명 길거리 음식 모음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흥대 거리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후르츠와플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성</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성</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b>남성</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성</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 521-4405

호남지사 ☎ 275-7766